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방법

손호민*

I. 미국의 외국어 교육 정책

21세기를 앞둔 인류는 부유한 나라이건 가난한 나라이건 점차 상호의존 없이는 살아남기 어렵게 되었다. 최근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역의 질서는 상호유대의 방향으로 급격히 변화 발전하고 있다. 또한 교통통신 수단의 전자화로 세계는 일일생활권이 되었고, 시간과 장소라는 전통관념은 퇴색되어 언제나 어디서나 전화, 팩스, 전자메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천만 세계인구는 즉각적인 국제적 교류에 임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필수불가결한 자질은 외국어 능력이다.

개인적인 발전과 실리적 차원에서도 외국어는 필요 불가결하다. 외국어, 외국문화를 습득함으로써 개인의 경험과 세계관을 넓히고 국제간의 문화적 이해를 높일 뿐 아니라 모국어와 자기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국에 진출하고 외국인을 상대할 수 있는 기업과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즉 21세기 지구촌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이다. 더욱이 외국어 습득은 분석적인 능력을 길러주

*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는 것임으로 모국어만 아는 아동보다 이중언어 사용 아동이 언어습득에서 뿐 아니라, 여러 다른 학문분야의 학업에서나 인지적 발달과 창의성에서도 더 우월하다는 실험 결과가 많이 나와 있다 (Ianco-Worrall 1972; Lambert 1977; Bhatnagar 1980; Dolson 1984; Fantini 1985; Cooper 1987; Olsen & Brown 1992; Meisel 1990; 이미선 1999; S. Sohn, et al. 1999 등 참조).

이러한 국제적 상황의 요구에서뿐 아니라, 미국의 전형적인 다민족 다문화 사회의 요구에도 부응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와 국민, 각급 교육기관, 학술단체, 지원단체 등은 최근 전례 없이 외국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1970년대 말 카터행정부 이래 계속 강력한 외국어교육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계기로 부진했던 미국의 외국어교육은 상당히 활기를 띠게 되었다. 각급 학교의 외국어 과목의 신설 내지 기존 프로그램의 확충, 외국어 습득시설의 개선과 교재개발, 광범한 외국어 필수과목제 도입, 외국어 습득과 교수법에 관한 활발한 연구, 각종 외국어관련 단체 및 학회의 신설 내지 활성화, 정부 및 여러 재단의 학술지원 등 외국어 교육 전반에 걸쳐 많은 질적 양적 성장을 이룩하였다.

미국의 또 하나의 현저한 경향은 비전통언어(less commonly taught languages)에 대한 배려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은 이미 모든 소수민족이 백인사회에 녹아들어가는 melting pot의 사회가 아니다. 1964년 인권법을 제정하여 인종과 출신국으로 인한 여하한 차별도 불법화하여 이제 각 민족의 주체성이 법으로 보장받는 다문화 사회로 확립되었다. 다문화사회인 만큼 소수민족의 언어가 존중되고 있다. 또 1968년의 이중언어 교육법, 1974년의 교육기회균등법 등의 제정으로 이중언어교육이 합법화되어 있다. 이리하여 현재 40여 개의 크고 작은 외국어가 각급 학교에서 교수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정부와 각급 학교에서는 아시아 언어에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 아시아 언어는 태평양 시대의 불가결한 언어일 뿐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우수한 아시아인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아시아 언어는 미국 사람들이 언어구

조상으로서나 문화적으로나 그리 쉽게 배울 수 있는 성질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정책적, 실제적, 교육적 노력이 요구된다(Brecht and Walton 1997). 아시아 언어에 많은 역점을 둔 결과로, 미국의 각급 학교와 정부 기관이 아시아 언어 교과과정을 현저하게 확충하였고, 최근에는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를 SAT II 과목으로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미국정부에서는 최근 21세기에 대비한 초등학교(유치원 1년 포함)와 중·고등학교(secondary schools)의 외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네개의 외국어교육 협회에 의뢰하여 초·중·고등학교의 외국어교육 목표와 교육내용의 기준을 개발케 하였다(NSFLEP 1966; Lafayette 1996).¹⁾ “21세기에 대비한 외국어습득의 기준”(Standards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 Preparing for the 21st Century)이라고 불리는 이 109쪽의 지침서는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정책지침으로 채택되었고 미국전역 42개의 외국어교육협회가 인준하였다.²⁾ 그리고 많은 외국어학회와 대학에서는 이 지침서를 standards-based foreign language instruction이라는 이름하에 대학의 외국어교육에까지 적용하고 있다. 특히 한국어와 같은 비전통 외국어의 경우에는, 초·중·고등학교의 외국어 교육이 미미한 실정임으로 이 지침서의 기준을 대학에까지 적용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1) 이들 4개의 교육단체는 미국 외국어교육 협회(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미국 불란서어 교육자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Teachers of French), 미국 독일어 교육자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Teachers of German), 미국 서반아어 및 포르투갈어 교육자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Teachers of Spanish and Portuguese)이다.

2) 원문은 다음과 같다: Philosophy—Language and communication are at the heart of the human experience. The United States must educate students who are linguistically and culturally equipped to communicate successfully in a pluralistic American society and abroad. This imperative envisions a future in which all students will develop and maintain proficiency in English and at least one other language, modern or classical. Children who come to school from non-English-speaking backgrounds should also have opportunities to develop further proficiencies in their first language.

이 지침서에는 외국어교육의 기본원리(philosophy)와 교과과정의 목표(curricular goals)와 목표달성을 위한 내용습득의 기준(content standards)이 명시되고 구체적으로 해설되어 있다. 우선 기본원리는 다음과 같다.³⁾

◆ 미국정부의 외국어교육의 기본 원리

언어와 의사전달은 인간생활의 기본이다. 미국은 학생들에게 미국의 다문화 사회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의사전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앞으로 모든 미국 학생들은 영어 이외에 최소한 하나의 외국어(현대어나 고전어)를 습득하여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비영어권에서 온 학생들은 각자의 모국어를 더욱 능숙하게 배우고 구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 기본원리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모든 학생으로 하여금 외국어와 외국문화를 필수적으로 습득하도록 하는 교과과정을 각급학교가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비영어권에서 온 학생들은 자기 모국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본원리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교과과정의 목표를 5C의 성취라고 규정하였는데 5C란 Communication, Cultures, Connections, Comparisons, Communities를 말한다. 각 C를 달성하기 위하여 습득해야 하는 내용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있다.

◆ 외국어 교육과정의 다섯 가지 목표 (5C's)와 습득기준:

C1: 의사전달(Communication): 영어 이외의 외국어 사용에 능통할 것.

기준 A. 대화를 할 수 있고, 정보를 주고받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을 것.

3) 예컨대, 하와이주의 경우 연방정부의 기준에 입각한 주정부의 기준을 1999년 8월에 주 교육감으로부터 전 초·중·고등학교에 시달하였다(DOE of Hawaii 1999).

기준 B. 각종 주제에 관한 구어와 문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기준 C. 각종 화제나 주제에 관한 정보, 내용, 생각을 청중 또는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

C2: 문화터득(Cultures): 외국의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터득할 것.

기준 A. 외국의 행동문화(즉 언어적 행위와 비언어적 행동)와 행동 문화에 내재하는 관념적 문화(즉 전통사고방식, 태도, 믿음, 가치관)와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것.

기준 B. 유형, 무형의 문화적 소산품(예컨대, 그림, 문학 작품, 이야기, 춤, 교육제도 등등)과 그러한 소산품에 내재하는 관념적 문화와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것.

C3: 다른 학과목과의 연계(Connections): 외국에 대한 각종 학과목을 외국어로 습득하여 지식과 정보를 넓힐 것.

기준 A. 외국의 여러 분야에 대한 정보를 그 나라 언어를 통하여 배움으로써 언어 이외의 다른 학과목에 대한 지식을 강화하고 발전시킬 것.

기준 B. 외국 문화와 언어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정보와 외국민의 견해와 관점을 해당 외국어를 통해서 터득할 것.

C4: 비교(Comparisons): 언어와 문화의 본질을 통찰할 것.

기준 A. 습득한 외국어와 모국어를 비교함으로써 언어 일반의 본질을 이해할 것.

기준 B. 습득한 문화와 자기 문화의 비교를 통하여 문화 일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것.

C5: 다문화 사회에의 참여(Communities): 국내외의 다언어, 다문화 사회에 참여할 것.

기준 A. 습득한 외국어를 학교에서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사용할 것.

기준 B. 만족스런 생활과 개인적인 발전을 위하여 외국어를 평생습득하고 구사할 것.

외국어 교육의 다섯 가지 목표(5 C's)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의사전달 목표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습득기준은 학생들이 장기간의 습득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성취하여야 하는 수준을 말한다. 예컨대, 의사전달 목표의 경우, 기준 A는 대인관계에서의 원활한 교신(interpersonal mode)을 말하며, 기준 B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청취능력과 독해능력(interpretive mode)을 말하며, 기준 C는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말과 글로 청중이나 독자에게 의사를 발표할 수 있는 능력(presentational mode)을 말한다. 학생들이 이러한 각 교과과정 목표의 습득기준에 성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각급 학교의 외국어 교과과정, 교재, 교수법 등을 대폭 수정 보완하고 향상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II. 한국어 교육의 배경

이상과 같은 세계의 상호의존적 추세와 미국의 강력한 외국어 정책으로 말미암아 한국어도 다른 인기 있는 외국어처럼 미국의 정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자랄 수 있는 기본여건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교수되고 있는 크고 작은 40여 개의 외국어와 경쟁하여야 한다는 힘겨운 부담을 안아야 한다. 다행히 1970년대 후반부터 한국어 교육이 급성장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요인들 때문이다.

첫째, 한국인 인구의 급증이다. 1975년에 한국계 인구가 10만 정도였는데 과거 25년간 20배가 증가하여 현재 200만이 넘는다. 물론 1970년대 이래 한국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미국정부가 1968년 이민법을 개정하여 동양인의 대량이민을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한인인구의 급증은 한국, 한국인, 한국어,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크게 불러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둘째, 1970년대 후반부터의 한국국력의 급신장이다. 한국의 기적적인 경제발전으로 한국의 존재가 국제사회에서 뚜렷이 가시화되고 한미간의 무역, 경제, 문화, 정치, 학문 등의 교류가 급진전됨으로써 한국어를 배우려는 실리적, 학문적, 교양적 동기가 유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한국정부기관(예컨대 외교통상부, 교육부, 문화관광부와 그 산하기

관)의 한국학과 한국어의 세계화 정책이다. 이것은 해외 한국인의 급증(현재 550만으로 세계 전체의 한인인구의 7%)과 한국의 국력신장으로 연유된 정책이라 볼 수 있다. 이 정책에 따른 각종 지원으로 많은 대학에 한국학 교수직과 한국학 프로그램이 생기게 되고 많은 한국어 과목이 개설되게 되었다.

넷째, 북한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도 미국의 한국어 교육에 크게 기여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정부직속 기관의 한국어 교육은 다분히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가장 두드러진 예는 캘리포니아 소재 미국 국방외국어대학(Defense Language Institute 즉 DLI)의 경우이다. 매년 600명의 미국 군인(거의가 다 비한국계)이 각각 2,000시간의 한국어 교육을 철저히 받기 때문에 이들은 군 복무 중이나 제대후나 소중한 한국어 사용자로 기능한다.

다섯째, 한국의 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는 SAT II의 과목으로 (일본어, 중국어에 이어 아홉 번째 외국어로) 한국어가 1997년부터 채택되었다는 사실이다. SAT의 높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입학한다는 것은 모든 학생과 학부모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교등학교 졸업 전에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열망이 일고 있다. 최근 갑자기 34개나 되는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고 한글학교의 상급반이 SAT II-Korean 준비과정이 되고 있는 실정을 볼 때 SAT II-Korean의 채택은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가장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동기를 부여한다. 1997에 2,447명의 고등학생이 이 시험에 응시했고(800점 만점 중 평균 649점), 1998년에 2,433명이 응시했으며(평균 751점), 1999년 11월 현재 2,500명 가량이 등록하고 있다(Ree 1999).

끝으로, 여러 대학에서 학문적 목적으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많은 대학이 오래 전부터 동아시아 3국 중 중국어/중국학과 일본어/일본학만을 교과과정에 포함시켜 왔다. 그러나 두 나라 문화의 교량인 한국어/한국학을 포함시켜 학문상의 불균형과 공백을 없애려는 노력이 팽배하게 된 것이다.

Ⅲ. 한국어 교육의 실정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어를 습득하는 인원은 세계 도처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새국어생활 1권 2호(1991); Sohn and Lee 1995; 교육한글 10호(1997) 참조). 예컨대 아래의 통계는 과거 25년 동안 미국에서 한국어 교육의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한국어 과목이 개설된 미국학교 수

연도	한인사회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1975	7	0	10
1999	850 가량	34	110 이상

학생수를 보면, 한글학교(한인 사회학교 또는 토요학교라고도 함)는 매 학기 총 약 50,000명의 초(유치원 포함)·중·고등학생들이 5,000여명의 시간강사에게서 배우고 있고, 정규 중·고등학교에서는 매학기 총 2,000명 정도가, 그리고 대학에서는 매학기 총 5,000명 정도가 한국어를 습득하고 있다. 그 외에 정부직속 기관인 Foreign Service Institute(FSI), Central Intelligence Agency(CIA), National Security Agency(NSA), Defense Language Institute(DLI)에서도 정부요원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특히 DLI(미국 국방외국어 대학)에서는 기술한 바와 같이 매번 600명 가량의 군인들이 하루에 6시간씩 120여 명의 한국어 전임 교직원으로부터 1년 2개월간의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어 수강생이 급속히 늘고 있지만 한국어는 다른 인기 있는 외국어에 비하면 아직도 극히 열세임에 틀림없다. 예컨대, 현재 미국에서의 초·중·고등학교 한국어 교육은 아직 보잘 것 없다. 한국어를 외국어 과정으로 가르치는 초등학교는 전무의 상태이고 중·고등학교도 겨우 34개교에 불과하다. 1994~95학년도에 대한 Draper and Hicks(1996)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중·고등학교 즉 7~12학년의 총 학생수의 33.04%(6

백만 이상의 학생)와 초등학교 즉 유치원에서 6학년까지의 총 학생수의 5.02%가 외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극소수의 인기 있는 언어들(예컨대 서반아어, 불란서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만을 가르치고 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서반아어가 64.5%, 불란서어가 22.3%, 독일어가 6.1%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통외국어라고 일컬어지는 이들 세 언어가 외국어를 배우는 총 학생 수의 93%를 점하고 있다. 다음 표에서 보듯이 한국어는 17위로 0.01%에 그친다.

◆ 미국의 중·고등학교 외국어 수강생 수(Draper and Hicks 1996)

1. 서반아어	3,930,078 (64.47%)
2. 불란서어	1,360,170 (22.32%)
3. 독일어	373,234 (6.12%)
4. 라틴어	214,182 (3.51%)
5. 이탈리아어	57,033 (0.94%)
6. 일본어	47,008 (0.77%)
7. 모국어로서의 서반아어	19,934 (0.33%)
8. 러시아어	18,213 (0.30%)
9. 중국어	9,456 (0.16%)
10. 포르투갈어	4,810 (0.8%)

17. 한국어	638 (0.01%)

4년 전의 이 통계에 비하여, 중·고등학교 한국어 교육은 최근 급격히 성장하여,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 34개 중·고등학교(총 92개 반)에서 총 약 2,000명에게 실시하고 있다(Ree 1999). 한편, 미국 Modern Language Association의 대학 외국어교육 실태에 대한 1995년도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어가 가장 빨리 자라는 외국어(중국어가 두 번째)로 나타나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수강학생 통계가 집계되고 있다.

◆ 미국 대학 외국어 수강생 수(1995년 가을학기 MLA 통계)

1. 서반아어	606,283
2. 불란서어	205,351
3. 독일어	96,236
4. 일본어	44,723
5. 이탈리아어	43,706
6. 중국어 (만다린)	26,471
7. 라틴어	25,897
8. 러시아어	24,729

14. 한국어	3,343

한국어 수강생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기술한 바와 같이 1999년 현재 110개 이상의 대학에서 매 학기 적어도 총 5,000명은 수강하리라고 추산된다. 한국어 수강학생 수가 분기(quarter)당 300명(연 1,000명)이 넘는 UCLA 같은 대학이 있고(S. Sohn 제보), 150명을 전후하는 UC Berkeley, UC Irvine, UC San Diego,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Columbia University, University of Illinois, University of Hawaii, Brigham Young University 등이 있으며, 그외의 대부분의 대학은 학기당 수강생이 30명 내지 100명 가량의 학교들이다.

한국어 수강생의 대다수는 한국계 학생이다. 이것은 미국의 대부분의 비전통 군소언어에 공통된 현상이다. 한글학교 학생들의 대부분이 한국계 자녀이다. 특히 이들 한글학교 중 90% 이상이 한인교회에 부설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인 자녀 이외의 학생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정규 초·중·고등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 실정이다. 이중언어교육을 받는 학생이건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생이건 거의가 다 한국계 학생이다. 대학의 경우에는 보통 줄잡아서 80% 가량이 한국계라고들 한다. 대학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초급반의 경우에는 비한국계가 상당수(30% 내지 60%)를 차지하지만 중급,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한국계

가 압도적으로 많아진다. UCLA는 초급부터 한국계가 80%가량이나 하와이 대학의 경우를 보면 1999년 가을 학기 초급반 33명 중 10명만이 한국계이고 나머지는 백인계, 일본계, 비올빈계 등이 차지하고 있고, 고급반은 90%이상이 한국계이다. 예외적인 학교로는 물론교 선교에 역점을 둔 유타 주의 Brigham Young University와 DLI이다. 이들 대학의 한국어 반에는 한국계 학생이 거의 없거나 극소수이다.

IV. 한국어 교육 방법

현재 미국에서 한국어는 한국인 학부모들, 사설학원, 한글학교, 정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연방정부 직속 학교 등을 통하여 습득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한국계 학생들이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매일 부모나 조부모한테서 듣고 배운 일상 한국어는 가장 자연스러운 한국말이다. 가정에서 이렇듯 장기간 자연스럽게 한국말을 배울 경우, 한국계 학생들은 한국어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 일상 한국말을 구사할 수 있거나, 적어도 들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나 대학에 가면 중급반이나 상급반에 배치되게 된다. 실로 한국어사용을 통한 가정교육은 각별한 중요성을 갖는다(이미션 1999).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초·중·고등학생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이영태(1997)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300명의 응답자 중 거의 모두가 한국말로 대화할 수 있는 상대자는 부모(67.6%)와 조부모(21%)라고 대답했다. 즉 한국어 전수의 주도자는 일차로 부모임이 확인되었다.

한편, 한국인이 많이 사는 대도시에는 각종 사설학원이 생겨서 아동들의 한글 읽기와 쓰기, 중고등학생들의 SAT II-Korean 시험준비, 성인들의 실용한국어 습득 등 극히 다양한 목적과 다양한 교과과정을 가지고 상업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하 가정교육이나 사설학원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지 않고, 한글학교와 정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만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방법을 논의하고자 한다.

1. 한글학교의 한국어 교육

한글학교는 한국사람이 모여사는 곳을 중심으로 전국 도처에 산재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십만의 한국인과 수많은 한국인 교회가 있는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등지에 대폭 집결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글학교의 90%이상은 한국인 교회에 부설되어 있다. 1996년도의 한국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교원수 5,601명에 학생수가 50,434명인바, 그 중 유치원 12,799명, 초등학생 22,336명, 중학생 8,869, 고등학생 5,158명, 성인 1,272명으로 나타나 있다.

교육의 양과 질 면에서 천차만별을 보이고 있다. 학생 10여 명에 불과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 500명 이상의 학교(예컨대 로스앤젤레스 소재의 동부 한국학교)가 있고, 언어능력 수준이 아주 다른 학생들을 모두 한 반에서 가르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학생의 나이 또는 학년과 한국어 능력별로 반을 세분하여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 교사의 경험이나 영어구사 능력도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첫째, 교과과정이 대체로 동일하다. 거의 모든 한글학교가 일주일 중 토요일 오전에만 3시간 수업을 하고 그 중 처음 두 교시(90분)는 한국어 수업이고 셋째 교시는 한국문화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특별활동이다. 특별활동에는 미술, 음악, 고전무용, 태권도, 역사책 읽기, 영화감상 등이 포함되는데 학교에 따라 다양하게 반을 나눈다.

둘째, 한국어 반 구성은 대체로 기초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분류되나 학교에 따라 기초반과 초급반이 또는 중급반과 고급반이 통합된다.

셋째, 대체로 1년에 4학기(봄, 여름, 가을, 겨울)가 있고 한 학기는 12주(36시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한 학생이 일년을 계속할 경우 1년간 총 수업시간은 144시간이고 그 중 한국어 수업시간은 96시간이 된다.

넷째, 학생구성은 유치원생으로부터 12학년(고3)까지 다양하고 대부분이 한인교포 2세이다. 학생중 초등학생(유치원생포함)이 70% 내지 80%를 차지하고 그 나머지가 중·고등학생(7~12)과 극소수의 성인이다. 최근 들어

고등학생의 경우는 상급반에서 SAT II 시험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고 있다.

다섯째, 교사는 한국 유학생(주로 대학원생), 해당교회의 교포교인, 한국에서 교사경험있는 일반인 등을 교사로 채용한다. 교사에 대한 대우는 시간당 15불 정도(매달 약 \$200)이다.

여섯째, 교재는 주로 (a) 전국 한인학교 협의회에서 개발한 교과서와, (b) 남가주 한국학교 연합회가 개발한 교과서 그리고 (c) 한국 교육부의 국제교육 진흥원에서 발간하여 영사관을 통하여 매년 무상으로 배포되는 재외교포용 교과서가 사용된다. 학교에 따라서는 이들 여러 교과서를 토대로 자체 개발한 교재를 쓰거나 기타의 교과서를 쓰기도 한다.

일곱째, 대다수 학생의 학습동기는 부모의 권유 때문이다. 이영태(1997)의 설문통계에 의하면 300명의 초·중등학생 응답자 중 213명(70.9%)이 부모의 결정에 의하여 한글학교에 다니며, 36명(18%)이 부모의 생각과 본인의 생각이 합쳐 다닌다고 한다. 친구 때문에 다니는 경우는 28명이고 본인이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경우는 주로 중학생 23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인의 뿌리교육은 절대적으로 부모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술한 바와 같이 최근 고등학생들은 SAT II 시험 준비를 위하여 한글학교의 고급반에 등록하는 경향이 크다.

참고로 한인 인구 50,000명이 살고 있는 하와이 주에는 현재 약 20개의 한글학교가 대부분 한인교회에 부설되어 있고, 한인성당과 절에도 각각 부설되어 있는데, 그중 가장 큰 두 학교는 한인 감리교회 부설의 한인 사회 학교와 아이에아 한인 감리교회 부설의 한인 문화학교인데 학생이 현재 각각 약 130명이다(김영규 제보). 그외의 학교는 평균 30명 정도의 학교들이다. 한인 사회 학교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Andrew Byon 제보).

◆ 한인 사회 학교: Honolulu 한인 감리교회 부설; 1973년 개교

교사진: 12명 (대다수가 유학생으로 12명 중 10명이 언어학, 영어교수법

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임. 대다수가 한국의 교사 자격증 소유자임.)

교사대우: 시간당 \$15 (월 약 \$200).

한국어 반구성: 총 11반

기초1 (3반), 기초2 (3반), 초급1 (2반), 초급2 (1반), 중급1,2,3 (1반),
고급1,2,3 (1반)

시간표(매 토요일):

08:30~09:15(교사회의); 09:15~10:00(1교시); 10:15~11:00(2교시);
11:15~12:00(3교시); 12:00~12:45 (교사회의)

(※3교시는 특별활동 시간으로 미술반, 태권도반, 고전무용반, 영화
감상반이 있음)

학기: 1학기가 12주로, 1년에 4학기(봄, 여름, 가을, 겨울)가 있으며, 8월
한달은 여름방학임.

학생구성: 1999년 가을학기 학생수는 133명(각반 평균 13명). 연령은 유
치원생부터 12학년(고3)까지 다양하고 대부분이 한인 2세임. 부모의
권고나 대다수의 학습동기임.

기타: 금년부터 연 \$300의 지원금을 총영사관을 통해 받음.

전국에 산재한 모든 한글학교는 전국 한인학교 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Schools)의 산하에 있고, 남가주의 경우에는 따로 남가주 한국학교 연합회에 가입하고 있다. 이들 두 단체는 직접, 간접으로 한글학교 활동을 돕고 있는데, 한글학교 교육과정모델 개발, 학술대회 개최, 교사 연수회 개최, 교재개발 및 보급, 회지 발행, 각종 교육 행사 주최 등을 사업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한글학교의 과정을 이수하면 정규 학교의 외국어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 받도록 하는 운동이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하와이 등 일부지역에서는 이미 일정시험을 거쳐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한글학교 교육에 가일층 큰 동기를 부여하게 되고, SAT II와 더불어 한글학교 교육을 강력히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수업시간의 제한, 교사의 질 문제, 교사의 대우 문제, 학생과 학부모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열의 부족, 시청각 교재의

부족 등,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앞으로 각계각층의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2. 초·중·고등학교의 한국어 교육

1968년 이중언어 교육법(Bilingual Education Act)이 제정된 이래 과거 30년간의 정규 초·중·고등학교의 한국어 교육은 대체로 영어가 부족한 한국이민 학생들에게 영어가 익숙해 질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한국어로 수업을 받는 소위 과도적 이중언어 교육(transitional bilingual education)이었다. 지금도 초등학교에서는 원칙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아니고, 새로 이민 온 한국학생들에게 필요에 따라 이러한 과도적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한국어 능력이 유지 또는 향상된다는 점에서는 일종의 한국어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영어를 잘 모르는 한국 학생들이 미국에 이민 오게 되면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a) 완전히 영어로만 수업을 듣는 경우(English immersion programs), (b) 주로 영어로 들되 알아듣기 어려운 것만 이중언어 보조교사로부터 구두로 도움을 받는 경우(modified bilingual programs), 그리고 드물게는 (c)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모든 면에서 한국어, 영어 두 언어로 수업을 듣는 경우(Korean/English dual language programs 또는 two-way immersion programs)가 있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a)나 (b)를 선호한다. (c)의 경우에는 한국어 사용 학생과 영어 사용 학생이 전학년에 걸쳐 같은 반에서 전 과목을 한국어와 영어로 수업받는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두 부류의 학생들 모두에게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서 한국어, 영어의 이중언어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로스앤젤레스에서 위 세 가지(a, b, c) 방법을 사용하는 초등학교 중 각각 두 학교씩 선정하여 4학년 학생들의 유치원때부터의 학습결과를 비교 연구한 결과가 발표되었다(S. Sohn, et al. 1999). 이 보고에 의하면, 세 번째 방법(c)이 다른 두 방법보다 학생의 한국어 능력은 물론이고 영어

발달 면과 다른 과목에서도 결정적으로 우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⁴⁾

초기부터 이중언어교육을 실시하던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차차 위의 (c)와 비슷한 형태로 기능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즉 영어가 능숙하고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까지도 영어가 부족한 것 이민 온 한국학생들과 함께 이중언어반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추세가 생겼다. 예컨대 뉴욕시의 경우, 뉴욕시 교육구의 이중언어교육 정책에 의거 1979년에 Newtown High School에서 처음으로 한국 이민학생들에게 영어가 익숙해 질 때까지 한국어로 수업을 했고, 이어 Bryant, Flushing, Bayside, Francis Lewis 등 중·고등학교에서도 과도기적으로 한국어를 이용한 교육을 실시했다(Kwon 1999). 그러나 미국의 한국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한국의 경제가 급성장해 감으로써 점차 한국어를 더 배우려는 1.5세나 2세 한국계 미국학생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한국어가 대학입학을 위한 SAT II 과목으로 채택됨으로서 한국계 학생들의 중·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습득이 더 절실했다. 따라서 이러한 소수의 초기 중·고등학교들은 이제는 차차 과도적 이중언어 교육이라기보다는 한국에 관한 여러 과목을 한국어로 가르치는 정규 한국어 교육이 되어 가고 있다(Kwon ibid.). 한편, 최근 2, 3년 사이에 한국어 프로그램을 시작한 많은 중·고등학교에서는 처음부터 순수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지향하는 교과과정으로 출발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 34개에 이르는 미국 중·고등학교의 한국어 교육은 대체로 높은 수준의 한국어의 숙달과 한국 문화교육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거에는 한인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미국 주류사회로의 조속한 동화와 영어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었으나 이제는 SAT II의 좋은 성적으로 자녀들이 보다 우수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가고 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과목

4) 비슷한 예로 Ramirez 등(1991)의 라틴계 학생들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오랫동안 40% 이상을 스페인어로 교육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영어를 더 능숙하게 습득한다고 한다(이미선, 1999).

이 신설되고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다는 것이 이 사실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Sunny Hills High School, LA High School, Torrance High School, Valley High School 등이 그 실례이다. 예컨대, 부유층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시 소재의 Sunny Hills High School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S. Sohn 제보).

◆ 캘리포니아 Sunny Hills High School 한국어 프로그램

교사: Grace Chi(한국어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1명

(1명 더 추가 채용 계획임)

학생수: 150명 이상

급: 1급부터 5급까지 있음.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개설할 경우 대부분 5급까지 두는데 그 이유는 보통 8학년(중2)부터 외국어 과목이 있기 때문임.)

시간수: 매일 하루 1시간씩, 1주일에 5시간

교재: 고려대학 한국어 교과서와 보충교재

특징: 이 학교는 전체 학생 2,000명 중 한국계 학생이 700명임.

LA High School에서는 한국어 과목 이외에 한국문화 과목도 개설하고 있는데 비한국계 학생들도 많이 듣는다고 하며, Torrance High School의 경우는 모국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Korean for Native Speakers) 과목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전임으로 채용되려면 한국어 수강생 수가 150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어 교사들은 시간강사로 근무한다고 한다(S. Sohn 제보).

사립학교와 대학에서는 특별히 교사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으나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려면 우선 한국어 교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초·중·고등학교의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는 가급적 많은 인력이 사범대학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주정부에서 발급하는 정식 한국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자격증을 소지한 정식 교사가 있어야만 한국어가 정규과목으로 신설되고 발전될 수 있으며, 정식교사의 지도하

에서만 교생실습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실시해 온 긴급 임시 교사 자격증 제도나 보조교사 제도로는 한국어 교육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과거 수년 동안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국어 정교사 자격증 취득 (teacher credentialing for Korean) 문제가 논의되어 왔고 현재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현재로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실시되고 있는데 San Francisco소재의 Intercultural Institute of California(한국 언어, 문화 과목 담당)와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의 사범대학(일반 언어, 문화 교육 과목, 교생실습 담당)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년과정의 프로그램이 있고 California State University의 사범대학의 Korean-English 이중언어 분야의 2년과정이 있다. 앞으로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 UCLA 등 다른 몇몇 대학도 비슷한 과정을 신설할 전망이다. 이들 사범대학 과정을 수료 하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실시하는 한국어와 한국역사에 대한 소정의 시험 즉 SSAT-Korean(Single Subject Assessment for Teaching Korean)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받도록 되어 있다. SSAT-Korean 시험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국어 교육자들이 7년 동안 노력한 결실로서, 1999년 6월 26일에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었다(Blank 1999). 현재까지 3명의 중·고등학교 교사가 한국어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한다(S. Sohn제보).⁵⁾

중·고등학교의 한국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교사자격증의 문제뿐 아니라, 교재 문제도 심각하다. 실제로 시청각 등 부교재는 고사하고 미국 중·고등학생에게 어울리는 마땅한 본 교과서조차 없는 실정이다. 기술한 Sunny Hills High School 같은 모범 학교에서도 현재 차선택으로 대학생용인 고려대학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전술한 미국의 21세기 외국어 교육 목표(Communication, Cultures, Comparisons, Connections, Communities)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습득내용의 기준에 부응하는 중·고등학교

5) 이들 세 한국어 자격증을 받은 교사는 Grace Chi(Sunny Hills High School), Eunice Lee(Torrance High School/West High School), 김영아(LA High School)이다.

용 교과서와 부교재의 개발과 배치시험(placement test) 등 학생들의 한국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들의 개발도 시급하다.

3. 대학의 한국어 교육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 110개 이상의 크고 작은 미국 대학에서 매학기 5,000명 이상의 학생에게 한국어를 교수하고 있다. 한국의 국력신장과 미국내의 한국인 인구의 증가, 미국대학의 한국계 학생 수의 증가, 동아시아 3국(중국, 일본, 한국)의 균형있는 학문적 발전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의 수요가 커지게 되고 그 결과 한국어 강좌가 많은 대학에서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학생 수, 교과과정, 교수진, 교수법, 평가 방법, 사용 교과서와 부교재, 학교당국의 지원 등 모든 면에서 학교마다 극히 다양하다.

한국계 학생이 많지 않은 비교적 작은 대학은 소수의 학생들에게 초급 반만을 가르치거나 중급까지만을 가르치고, 한국계 학생이 많은 대학에서는 초, 중, 상급, 최상급 한국어가 개설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학을 전공하는 대학원 학생이나 한국어문학을 전공하는 극소수의 학생을 제외하면, 한국어 수강 학생들의 대부분은 여러 다양한 학과에 소속되어 있으며 한국어를 선택과목이나 외국어 필수 과목으로 수강한다. 현재 많은 미국대학(80% 이상)은 외국어를 1년 내지 2년간 필수적으로 배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다수의 한국계 학생들뿐 아니라 한국, 한국인, 한국어에 관심있는 소수의 비한국계 학생들도 한국어를 택하게 된다.

많은 대학에서 한국계 학생들과 비한국계 학생이 같은 반에서 한국어를 배우는데 이에 따른 적지않은 문제가 있다. 이미 한글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많은 단어와 읽기, 쓰기까지 배운 학생들은 중급이나 상급반에 배치될 수 있으나, 부모한테서 겨우 기본적인 말하기, 듣기만 익힌 한국계 학생들은 보통 초급 후반이나 중급 초반에 비한국계 학생들과 함께 배치된다. 이때 말하기, 듣기 위주의 교재는 비한국계에게는 극히 유용하나 한국

계에게는 시간 낭비이다. 또한 말하기, 듣기에 익숙한 한국계는 비한국계에게 적지않은 위협이 된다. 이러한 교육상의 불균형과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하여 극소수의 큰 대학(UCLA, UC Berkeley, Columbia 등)에서는 몇 년 전부터 중급까지 반을 한국계/비한국계의 두 계열(two tracks 또는 two streams)로 나누어 가르치는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S. Sohn 1997). 그러나 대다수의 대학은 한국어 프로그램이 비교적 작기 때문에 이러한 두 계열 제도 도입에는 예산상 문제가 있다.

대학의 한국어 수업은 대체로 초급과 중급은 매일 한 시간씩 실시하고 상급 이상은 일 주일에 3시간 한다. 그 외에 어학실습을 일 주일에 학교에 따라 2시간 내지 5시간 받는다. 초급, 중급의 교수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은 한 강사가 한 반을 전담해서 가르치는데, 소수의 대학(Harvard, UCLA 등)에서는 교수가 일 주일에 2시간을 내용, 문법, 문화 등에 대하여 강의하고 나머지 3시간은 10여명씩 작은 반으로 나누어 조교들이 따로 연습시킨다. 이 후자는 소위 fact와 act를 구별하여 가르치는 방법이다. 현재 대부분 대학의 한국어 교육은 기술한 바와 같이 많은 분야의 학생들에게 한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켜주는 service교육에 국한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경우 그런 대학에서는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교수직을 주지 않고 박사학위가 있더라도 전임강사(lecturer, instructor 또는 preceptor)직을 주는 것이 관례이다. 언어기술만을 가르치고 학문적인 내용은 교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최근 국방외국어 대학(DLI)은 교수제를 도입하여 교수경험이 많은 박사학위 소지자에게는 교수직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비교적 소수의 큰 대학, 예컨대 University of Hawaii, UCLA, Harvard University, Columbia University,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niversity of Washington, Brigham Young University 등에서는 한국어나 한국문학을 전공 학문분야로 설정하고, 필요한 교수를 충원하여 한국어학이나 한국문학의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교과과정과 학위과정의 가장 잘 되어 있는 하와이 대학의 경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하와이대학 한국어문학 프로그램은 중국어문학, 일본어문학 프로그램과 더불어 동아시아 어문학과에 속해 있다. 교수진이 47명인 거대한 일본 프로그램과 교수진 19명의 중국 프로그램에 비하면 양적인 면에서 한국어문학은 규모가 작다. 1999년도 한국어문학 교수진은 3명의 영구직 교수(그중 2명은 어학, 1명은 문학)와 2명의 조교, 3명의 시간강사, 그리고 1명의 한국학술진흥재단 객원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매학기 140여 명의 다른 학과 학생들에게 각급 한국어를 교수하는 한편, 한국어문학의 학사, 석사, 박사 전공학생들을 양성한다. 학사과정은 어학과 문학의 구분이 없으나 석사, 박사과정은 그 구분이 있다. 어학분야는 학위논문에서 다시 한국언어학, 한국사회언어학, 한국어교수법으로 분류된다. 현재, 학사과정에 5명, 석사과정에 3명, 박사과정에 8명이 있다. 교과과정은 다음 표와 같다.(괄호 안은 학기당 학점임.)

◆ 하와이 대학교 한국어문학 교과과정

가. 학부과정 : 언어과목	초급한국어	KOR 101(4)-102(4)
	중급한국어	KOR 201(4)-202(4)
	상급한국어	KOR 301(3)-302(3)
	최상급한국어	KOR 401(3)-402(3)
	한국어작문	KOR 420(3)
	언어와 문화	KOR 470(3)
	한국어 독해	KOR 481(3 또는 6)
	한국어 구조	KOR 451(3)-452(3)
문학과목	한국번역문학	EALL 281(3)-282(3)
	전통문학	KOR 463(3)
	현대문학	KOR 464(3)
나. 대학원과정 : 어학과목	한국어사-방언	KOR 631(3)
	음운론-형태론	KOR 632(3)

통사론-의미론	KOR 633(3)
사회언어학	KOR 634(3)
어학-교수법세미나	KOR 730(3)

문학과목	전통한국시	KOR 613T(3)
	현대한국시	KOR 613M(3)
	전통설화문학	KOR 614T(3)
	현대설화문학	KOR 614M(3)
	한국회곡	KOR 615(3)
	한국문학번역	KOR 640(3)
	문헌연구	KOR 711(3)
	문학세미나	KOR 720(3)

그 외에도 학부생을 위한 독해지도 과목(KOR 399, 499)과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지도 과목(KOR 699), 동아시아 언어 교수법(EALL 601), 동아시아 비교언어학(EALL 750), 비교문학(EALL 735), 한국어문학 연구방법(EALL 603K) 등의 과목이 있다. 하와이대학의 이러한 대학과 대학원의 교과과정과 학위과정을 설정하기까지는 아시아, 태평양학을 강조하는 해당국의 정책적 고려도 있었지만, 중국어문학, 일본어문학에 뒤지지 않으려는 담당교수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

한글학교나 중·고등학교보다는 사정이 더 낮기는 하지만 미국대학의 한국어 교재문제도 해외 한국어 교육에 상존하는 중요한 현안이다. 대학교, 중급 교과서는 무척 많다. 명도원 한국어, Samuel Martin과 이영숙의 Beginning Korean, Fred Lukoff의 한국어 교재, 고려대 한국어, 연세대 한국어, 서울대 한국어, UC Berkeley 교수진의 College Korean 등 수 많은 기존 교과서가 있고 이들 기존 교과서에 만족하지 못한 많은 선생님들은 개별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상급과 최상급 교과서는 많지 않다. 미국에서 출판된 것은 없고 고대, 연대 등 한국에서 나온 것을 쓰고 있는데, 필요한 영어 설명이 전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과 선생 쌍방이 모두 어려움을 겪는다. 그리고 미국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기가 힘들고 학

생들의 관심과 요구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허다하다. 한편 작문, 한자, 고급독본, 문학교본 등 미국학생들에게 적당한 부교재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하에 그리고 필자의 주도하에 1994년 중순부터 총 20권에 이르는 대대적이고 종합적인 영어권 교과서 개발 공동 사업을 추진하였다. 초, 중, 상, 최상급을 위한 총 14권의 기본 교과서(2권의 교사지침서 포함) 각 권마다 수명이 공동으로 개발하는데, 최신교수법의 제반 원리와 실재를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기술한 미국의 외국어 교육 목표와 기준에 준거하고, 영어권 학생들의 요구(needs)를 반영하고, 복잡한 언어체계와 문화체계를 비교언어적,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기본교재 이외의 교과서로는 한자교본, 작문교본, 단편소설, 현대문학교본, 고급독본, 언어와 문화 등 6권이 있다. 이들 이외에 문법 용례사전도 개발하고 있다. 이 모든 저서는 하와이대학 출판부에서 2001년까지 출판될 예정이다.

V. 21세기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과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한국어 교육은, 양과 질의 면에서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그러면 앞으로의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하 개인적 견해를 피력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급 학교의 한국어 교과과정의 목표와 내용, 실러버스 작성, 교재 개발, 교수 방법, 평가 방법 등 한국어 교육의 기반구조는 기술한 미국 정부의 “21세기에 대비한 외국어습득의 기준”에 바탕을 두기를 제의한다. 그것은 미국의 외국어교육 정책이며 한국어 교육에 전적으로 부합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목표와 기준에 의거하여, 한국어 특유의 단계별 학습 성취기준(performance standards)도 Swender and Duncan(1998)의 일반 모델에 따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에 제시한 여러 가지 제안도 직접, 간접으로 미국정부의 외국어교육의 기본원리와 목표와 기준에 부응한다.

둘째, 한국어 교육을 미국의 정규 교과과정으로 추진시킨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 미국의 각급 대학과 중·고등학교에서는 한국어가 정규 교과과정으로 확립되어 있으나 한글학교에서는 아직 한국어가 한국이민의 언어로만 인식되고 미국의 정규 교과과정으로 인정받지 않고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총력을 기울여 가능한 한 많은 미국의 일반 학교에서 한국어를 정규과목으로 개설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재미 일본계 인구가 겨우 70만 정도인데도 수백에 달하는 정규 초·중·고등학교에서 광범하게 일본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0만이 넘는 재미 한국계 인구에 비추어 볼 때 초·중·고등학교 한국어 교육의 실태는 실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한인인구 4만밖에 안되는 호주에서는 이미 55개의 초·중·고등학교와 9개의 대학에서 한국어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점을 상기할 때 미국의 한국어 교육에는 엄청난 공백이 있음을 알 수 있다(H Sohn 1999 참조). 기술한 바와같이 SAT II-Korean이 채택되고 한국어 교사의 자격증 문제가 서서히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의 한국어 도입 문제는 이제 학무모를 위시한 교민들과 한국어 교육자들의 노력에 달려있다.

셋째, 각급 학교간의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한글학교로부터 대학까지의 교과과정을 효율적으로 연결(articulation)시킨다.⁶⁾ 현재의 상황은 각급 학교간(예컨대 한글학교상호간, 중·고등학교 상호간, 대학 상호간)의 횡적교류는 학회 등을 통해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글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의 한국어 교육은 전혀 종적인 연결고리 없이 독자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교과과정, 교수내용, 사용되는 교과서나 기타 보조교재, 교수법이나 평가방법 등 전혀 서로가 모르는 실정이다. 1994년에 탄생한 미국 한국어 교육자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Teachers of

6) Articulation의 정의는 영어로 'seamless transition from one level to the next'이다.

Korean 즉 AATK)의 설립목표 중의 하나가 이러한 articulation의 시도였으나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중·고등학교 교사와 대학 교원간의 인적 교류와 공동교사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을 따름이다.⁷⁾ 한편 한글학교의 연합체인 전국 한인학교 협의회에서도 연례적으로 대학교수를 초청하여 몇몇 주제로 강연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극히 바람직한 일이나 articulation과는 거리가 멀다. AATK나 특정대학의 한국학 연구소가 주도하여, 각급 학교의 전문가들이 한 군데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연구를 통하여 통합된 한국어 교육 지침서를 제정하기를 바란다. 그러한 지침에 의거하여 각급 학교의 교과과정 설정, 교재개발, 또는 현존 교재의 질적 향상, 교수법 개발 등 일련의 새로운 활동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에는 전문적인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헌신적으로 앞장서야 하고, 응분의 재정적 지원이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한국어 교육이 한글학교와 대학은 물론이고 한국에서의 현지교육까지 체계적으로 통합되고 연결된다면 한국계 학생들을 위시한 많은 학생들이 대학졸업까지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한국어 구사능력(proficiency level)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초·중·고등학교에서 하위 수준의 한국어능력을 체계적으로 성취하게 된 학생들은 대학에서는 상급반에 배치될 것이기 때문이다. 단계적이어야 할 교육과정이 지금처럼 단절되어 있으면 언어습득과정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말게 된다.⁸⁾

한국어 교육의 상호유대와 articulation의 일환으로 컴퓨터 정보망(networking) 설치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현재의 실정은 한국어 교육의 교사

7) AATK는 미국 워싱턴 소재 National Foreign Language Center와 비전통 언어학회 연맹(National Council of the Organizations of Less Commonly Taught Languages)의 주도하에 필자가 초안한 정관에 의거 1994년에 창설되었고 필자가 초대 회장직(1994~1997)을 맡았다. 현재 회원은 300여명이다. 1995년부터 한국 학술진흥재단과 한국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8) 현재 다른 여러 외국어들 측에서는 이러한 articulation작업에 전념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어 교육자들은 유치원에서 대학까지를 연결시키는 교과과정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들, 전문가들, 학생들 할 것 없이 지역적으로 전국에 산재해 있어서 상호 교류나 정보교환의 기회가 많지 않고 쓸데없는 노력의 중복으로 그렇지 않아도 제한된 시간, 자금, 인력의 낭비가 심한 편이다. 그럼으로 각급 학교의 모든 한국어 교육자들과 한국어학습자들이 전국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networking이 설치되어 모든 유용한 교과과정, 인력자원, 교수법, 교육 자료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입력되고 광범위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전문가들의 공동연구와 긴밀한 협력이 시급하다.

넷째, **각급학교의 교과과정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미국의 전통외국어나 다른 인기있는 외국어의 실정과 비교해 볼 때, 한국어를 미국전역에서 초·중·고등학교에 광범하게 도입한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그리 쉽게 이루어질 일은 아니다. 따라서, 일부 주에서 시도하듯이 전국의 각 교육구와 협의하여, 모든 한글학교의 한국어 과목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인정받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반 초·중·고등학교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한글학교에서 대신해서 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글학교의 교과과정이 교육내용과 시간수에 있어서 일반 학교의 교과과정에 맞도록 개선되어야 한다(정규 초등학교는 대체로 주당 3시간이고 중·고등학교는 5시간임). 한글학교의 사명은 실로 막중하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흥미와 한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문화 과목은 물론 각 학문분야에 걸친 광범한 내용중심의 한국어 교과과정(content-based curriculum)이 설정되어야 한다. 대학의 한국어 교육은 하나의 학문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각급 학교를 망라한 미국교육계에 한국어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하여는, 모든 다른 분야 학생들을 위한 service과목의 역할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대학에서 한국어를 하나의 탄탄한 학문 분야로 발전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전술한 하와이대학의 경우처럼, 교과과정이 대폭 개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한국어 교육자들의 부단한 헌신적 노력이 요구된다.

다섯째,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재의 개발**이다. 초등학생이나 대학생도 그렇지만 특히 5C와 그 습득기준에 따른 효

울적인 중·고등학생용 교재의 개발이 더욱 시급하다. 현재 한글학교의 한국어 교육이 훈련을 받지 못한 한국인 교사들이나 대학원학생들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고 또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훌륭한 교과서와 부교재가 더욱 필요하다. 전통적인 형태의 교과서 뿐 아니라 각자의 개별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학습교재(즉 customized learning modules), 다양한 시청각교재, 컴퓨터화된 multi-media 교재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의 자습을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한국어 교육 코스(web-based courses)도 광범하게 개발하여야 한다(Nielsen and Hoffman 1996 참조).

여섯째, 각급 학교의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체계적인 교사훈련을 계속 실시하여야 한다. 신규교사나 예비교사뿐 아니라 경험 있는 교사도 자주 교사훈련 워크샵에 참여하여 참신한 교수법과 교과과정에 익숙해져야 한다.⁹⁾ 가르칠 언어내용과 언어구조, 교과과정 작성, 그리고 교수법, 평가법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연수가 필요하다. 외국어교수법에 관해서는 최근 여러 가지 이론과 응용방법에 대한 연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교사연수를 통하여 일선 교사와 교수들에게 전수되어야 한다. 학술대회와 교사연수, 워크샵, 그리고 각종 미니 발표회와 학회지의 탐독을 통하여 교사와 교수는 꾸준히 자기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각급 학교와 한국, 미국의 지원기관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최대한의 투자를 아끼지 않기를 바란다.

일곱째,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한 꾸준한 연구가 요구되며, 많은 한국어 교육 전문가가 배출되어야 한다. 효율적인 교재개발, 교사양성, 교과과정 설정, 교수법과 평가방법의 개발, 한국계와 비한국계 학생의 교육문제 등 여러 중요한 현안과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는 이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연구와 풍부한 경험의 소유자들이 앞장서야 한다. 한국어

9) 중·고등학교 교사와 대학강사에 대한 교사연수는 AATK의 연례 학술대회의 일환으로 매년 한국 국제교류재단의 지원하에 실시되고 있다.

교육의 전문가란 한국어교수에 종사하면서 언어학적, 문화적 지식과, 외국어습득, 교과과정, 평가 등의 이론적, 실천적, 방법론적 지식과 경험과 연구업적을 풍부히 갖추고 있어서 이를 실제 상황에 적절히 응용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말한다. 이러한 전문가 없이는 효과적인 한국어 프로그램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전문가는 많을수록 좋은데 불행히도 아직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이론언어학자는 지극히 많지만 한국어 교육 전문가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21세기를 앞두고 현재 한국어 교육자들이 더 많은 연구활동을 통하여 전문가가 되기를 바라며 한편 새로운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

끝으로, 모든 한국계 학생이 어려서부터 한-영 이중언어인이 되게 해야 한다. 현재 200만 교포 가운데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학생 총수는 500,000명 가량으로 추산되는데 한국어를 실제로 습득하고 있는 학생은 한글학교 50,000명, 중·고등학교 2,000명, 대학(교) 5,000명(이중 1,000명가량은 비한국계), 도합 57,000명이다. 즉 현재 재미 한국계 학생들의 11% 정도만이 각급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이중 대부분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주를 이루는 한글학교 학생이다. 즉 학년이 높아갈수록 한국어 습득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된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어 습득의 중요성은 지대하다. 이러한 일반적인 중요성 이외에도 한국계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한국어를 배워서 한-영 이중언어인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

(a) 외국어교육은 학생이 어릴 때 배울수록 더 효과적이다. 가장 자연스럽고 신속한 언어습득이 2살부터 12살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어는 영어 화자에게는 가장 어려운 언어인 소위 Category 4 언어(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로서 미국인이 서반아어, 불란서어, 독일어 등 전통외국어를 배우는 것 보다 같은 능력의 수준에 도달하는 데는 두 배 내지 세 배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통계적 연구로 밝혀져 있다. 한국어의 조기교육은 궁극적으로 높은 수준의 언어능력을 성취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b) 민족적 동질성(ethnic identity)의 문제이다. 기술한 바와 같이 미국은 이미 melting pot의 사회가 아니다. 한국계 미국인 2세, 3세, 4세들이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백인종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모르면 어떻게 민족적인 주체성, 동질성을 유지하고 어떻게 같은 한국민족과 교류가 가능할 것인가. 어느 민족 사회에도 속하지 못한 영원한 민족적 고아가 되고 마는 것이다.

(c) 원칙상, 한국계만이 완전한 한-영 이중언어인 이중문화인이 될 수 있다.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이중언어를 구사하면서 자라고 한글학교를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야말로 미국이 갈구하는 완벽한 이중언어 국민이 될 수 있고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교역 등 모든 국제관계에서 필요 불가결한 인재들이다. 이들이야말로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한국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교량적 역할을 하는 주역들이다. 한국어는 워낙 어려운 말이므로 미국에서 자란 비한국계가 배워서 이중언어인이 된다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다.

(d) 기타 많은 부차적인 이득이 있다. 한국어를 습득하여 SAT II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는 점, 대학에 가서 다양한 고급한국어 과목을 택할 수 있다는 점,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계되는 분야에서 석사 내지 박사학위를 큰 어려움 없이 취득할 수 있다는 점, 한국 신문 방송을 자유로이 읽고 들어서 평생 한국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무한정 넓힐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인생이 그만큼 즐거워진다는 점, 이중언어인이 단일 언어인 보다 지능이 우수하다는 점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점이 있다.

한국계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 장려는 미국의 “21세기에 대비한 외국어 습득의 기준”의 기본원리에도 전적으로 부합된다. 그러면 한국계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을 어떻게 장려할 것인가?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조기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과 긴박성, 이중언어인의 지능적, 학술적 우월성, 가정교육방법 등에 관하여 한국인 사회에 체계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다. 각종 재미있는 사례를 들어 신문, 책자, 라디오, TV방송, 강연, 워크숍 등

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아동들의 경우는 부모들의 인식이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부모들이 의도적으로 집에서 한국어만을 쓰도록 하고 한글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언어습득의 최적기인 2~12살을 놓치게 되면 그만큼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부모들로 하여금 명심토록 하여야 한다.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경우, 한국학생들의 동아리활동, 한국에 관한 각종 흥미로운 강연 또는 영화, 음악, 체육 등의 행사, 한국방문, 또는 한국어학습 활동 등을 통하여 강한 동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한국어 교육의 동기부여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는 학습활동이 즐겁고 유쾌하고 재미있어야 한다. 둘째는 학생이 배운 한국어의 실용성을 강하게 느껴야 한다. 즉 교실 밖에서 한국인들과 의사전달을 할 수 있게 배워야 한다. 셋째,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학생의 현재와 장래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 가를 직접 간접으로 인식해야 한다. 참고로 김혜영(1999)은 아동들의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하여 여 러가지 다양한 구체적인 수업방법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미선(1999)은 가정에서의 효율적인 이중언어교육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VI. 결론

지금까지 미국의 외국인 교육정책을 배경으로 한국어 교육이 처해 있는 실정과 각급학교의 한국어 교육 방법을 두루 살펴 보았다. 그리고 현안 문제가 무엇이며 그러한 문제들을 타결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가도 사전을 토대로 짚어 보았다. 필자가 10년 전에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H. Sohn 1990). 그 때 한글학교의 수는 477개교(학생은 30,173명), 초·중·고등학교는 전무, 대학은 30개교(학생은 1,286명)로 나타나 있었다. 과거 10년 동안 여러 관계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양적인 면에서 많이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제 21세기에 대비하여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백년대계를

세워야 한다. 각급학교에 종사하는 한국어 교육자들, 학자들, 교민단체, 학부모들, 한국어관련 각종 협회와 단체들, 한국의 지원단체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금까지 보다 더 적극적이고 조직적이며 강도 높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속수무책으로 자연발생적인 상황만 기대한다면 한국어 교육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지지부진하거나 자칫 수렁에 빠져들 위험성조차 없지 않다. 비한국계는 물론이고 한국계 학생마저, 배우기 쉽고 유력한 전통 외국어(서반아어, 불란서어, 독일어 등)나 다른 인기 있는 아시아언어(일본어, 중국어 등)에 끌려가거나 아예 외국어 습득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를 하나의 민족언어를 초월한 자타가 공인하는 국제어로 승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

《 참고문헌 》

- 한글학회(1997), 『세계 각국의 한국어 연구 현황과 교육 방향』, 한글 학회.
- 김혜영(1999), 「학습의역을 높이기 위한 한국어 수업 방법의 다양화」, 하와이대학 논문.
- 이미선(1999), 「이중언어사용 개론」, 하와이대학 논문.
- 이영태(1997), 「미주지역 동포의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체육부 및 국제한국교육학회 주최 세종탄신 600돌 기념 국제학술회의 발표 논문, 서울 세종문화회관, 9월 8일~10일.
- Bhatnagar, J.(1980), Linguistic Behavior and Adjustment of Immigrant Children in French and English Schools in Monttreal.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Psychology* 29:141-59.
- Blank, Lenore Kim.(1999), Teaching Korean to Diverse Ethnic and Cultural Students in the Twenty-Firt Century. Presented at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Studies : Koreans Abroad and the Next Generation (sponsored by the Foundation for SAT II Korean). Yonsei University. Seoul. June 28-30.
- Brecht, R.D. and A.R. Walton(1997), National Language Needs and Capacities : A Recommendation for Action. Paper presented at a UCLA Conference on Title VI Project. January.
- Cooper, T.(1987), Foreign Language Study and SAT-Verbal Scores.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1. 1:381-87.
- DOE (Department of Education) of Hawaii(1999), *World Languages : Content Standards*, Department of Education, State of Hawaii. 1999.
- Dolson, D.(1984), The Influence of Various Home Bilingual Environments on the Academic Achievement, Language Development,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of Fifth and Sixth Grade Hispanic Student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an Francisco.
- Draper, J.P. and J.H. Hicks(1996), Foreign Language Enrollments in Public Secondary Schools, Fall 1994.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 Fantini, A.(1985), The Language Acquisition of a Bilingual Child. Clevedon, UK : Multilingual Matters.

- Ianco-Worrall, A.(1972), Bilingualism and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43:1390-1400.
- Kwon, Hyunjoo(1999), Overview of the Korean Native Language Arts Program for Bilingual Korean Students in New York City Public High Schools. *Korean Language in America* 3:319-27.
- Lafayette, R.C.(ed.)(1996), National Standards--A Catalyst for Reform. Lincolnwood, ILL : National Textbook Company.
- Lambert, W.(1977), The Effect of Bilingualism on the Individual : Cognitive and Sociocultural Consequences. In P.A. Hornby (ed.), *Bilingualism : Psychological, Social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pp.15-280). 1997. New York : Academic Press.
- Meisel, J.(1990), Grammatical Development in the Simultaneous Acquisition of Two First Languages. In J. Meisel (ed.), *Two First Languages : Early Grammatical Development in Bilingual Children* (pp.5-22). Dordrecht : Kluwer.
- Nielsen, M. and E. Hoffman(1996), Technology, Reform, and Foreign Language Standards : a Vision of Change. In R.C. Lafayette (ed.), *National Standards-A Catalyst for Reform* (pp.119-37). Lincolnwood, ILL : National Textbook Company.
- NSFLEP(National Standards in a Foreign Language Education Project) (1996), Standards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 : Preparing for the Twenty-First Century. KS : Allen Press, Inc.
- Olsen, S. and L. Brown(1992), The Relation between High School Study of Foreign Languages and ACT English and Mathematics Performance. *ADFL Bulletin* 28.3:47-48.
- Ramirez, J.D.et al.(1991), Executive Summary, Final Report : Longitudinal Study of Structured English Immersion Strategy, Early Exit and Late Exit Transitional Bilingual Education Programs for Language Minority Children. San Mateo, CA : Aguirre International.
- Ree, Joe J.(1999), An Overview of the SAT II Korean Test. Presented at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Studies : Koreans Abroad and the Next Generation (sponsored by the Foundation for SAT II Korean). Yonsei University. Seoul. June 28-30.

- Sohn, Ho-min(1990),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Bilingual Education for the Overseas Koreans (Proceedings of the First Korean Studies Association of Australasia Conference)* 6:19-79.
- Sohn, Ho-min(1999), Whither Teaching of Korean in Australasia in the Next Century. *Linking Korea and Australasia for the New Century*, pp.13-25.
- Sohn, Ho-min and Dong Jae Lee(eds.)(1995), *A New Frontier in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Honolulu: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Research Center.
- Sohn, Sung-Ock(1997), Issues and Concerns in Teaching Multi-level Classes : Syllabus Design for Heritage and Non-heritage Learners. *Korean Language in America* 2:131-138.
- Sohn, Sung-Ock, et al.(1999), Research Report on the Korean/English Dual Language Program. Presented at the AATK Annual Conference. Columbus, Ohio. August.
- Swender, E. and G. Duncan(1998), ACTFL Performance Guidelines for K-12 Learners. *Foreign Language Annals* 31.4:479-91.